

지난 10년간 손해보험회사 상품구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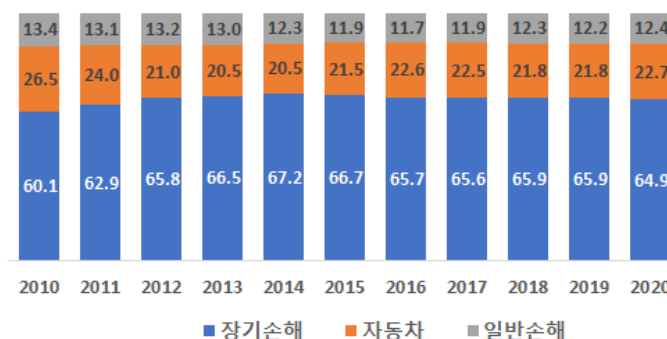
김세중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

요약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손해보험(장기, 자동차, 일반) 상품구성은 장기보험 비중이 4.8%p 증가하고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비중이 각각 3.8%p, 1.0%p 감소하였음. 회사별로는 대형사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중형사의 경우 모두 자동차보험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장기보험 비중이 크게 확대됨.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비중은 보험수요와 경쟁전략 등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성보험 수요 증가는 손해보험산업 상품비중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손해보험(장기, 자동차, 일반) 상품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장기보험 비중이 4.8%p 증가하고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비중이 각각 3.8%p, 1.0%p 감소하였음
 - 손해보험 상품은 크게 장기, 자동차, 일반, 퇴직연금으로 구성되나 퇴직연금의 경우 원수보험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장기보험에는 질병 및 상해, 운전자, 장기재물, 장기저축 등이 포함되며,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보험 등이 포함됨
 - 장기보험은 2010년 60.1%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4.8%p 확대된 64.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0년 26.5%에서 2020년 22.7%로 3.8%p 감소했으며, 일반보험 또한 2010년 13.4%에서 2020년 12.4%로 비중이 소폭 감소함
 - 지난 10년간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 비중은 60%, 20%, 10%대에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손해보험 상품구성(퇴직연금 제외) 변화(201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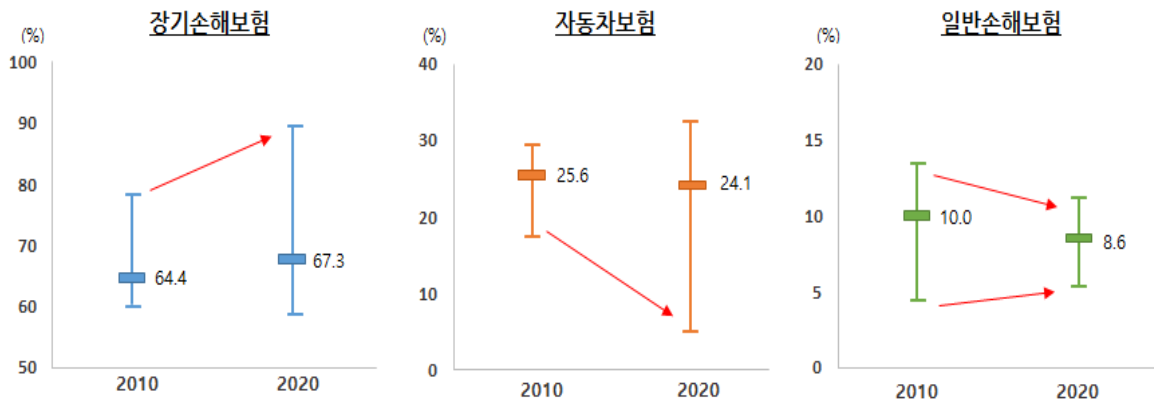


자료: 각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그러나 점유율 상위 8개 국내 손해보험회사¹⁾의 상품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회사별 비중 편차는 확대되었고 일반보험의 경우 편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그림 2>는 2010년과 2020년 국내 8개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별 비중 평균값과 최댓값, 최솟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막대의 길이가 길수록 회사 간 비중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2010년 회사별로 약 60~78%의 비중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2020년에는 약 59~90%로 편차가 확대되었으며, 자동차보험 비중도 2010년 약 17~30%의 분포에서 2020년 약 5~32%로 편차가 확대됨
- 한편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10년간 회사별 상품비중 편차가 4~13%에서 5~11%로 소폭 축소되었음

〈그림 2〉 국내 8개 손해보험회사 종목별 비중 변화



주: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점유율 상위 8개 국내손해보험회사 대상임

자료: 각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점유율 상위 8개 손해보험회사를 대형사와 중형사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형 4개사는 상품비중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중형 4개사의 경우 모두 자동차보험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장기보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대형 4개사의 경우 장기 및 일반 보험 비중이 소폭 축소되고 자동차보험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 외에는 지난 10년간 상품구성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중형 4개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자동차보험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장기보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2개사의 경우 장기보험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면서 동시에 자동차보험 비중은 10% 미만으로 축소됨
- 중형 4개사의 경우 장기보험 비중 확대와 자동차보험 비중 축소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험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 점유율 상위 8개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2020년 원수보험료 기준 점유율 3% 이상 손해보험회사로 손해보험산업의 약 90%를 차지하며, 농협화재의 경우 2010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함

〈표 1〉 손해보험회사별 상품비중 증감(2010 vs. 2020)

(단위: %)

구분	대형사				중소형사			
	A	B	C	D	E	F	G	H
장기손해	-1	-1	3	-4	15	8	15	11
자동차	3	3	0	3	-13	-7	-18	-12
일반손해	-2	-2	-3	1	-2	-1	4	1

주: 노란색 박스는 상품비중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이며, 초록색 박스는 상품비중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임
 자료: 각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중형 4개사의 상품비중 변화는 장기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 확대, 판매채널 환경변화, 자동차보험 서비스 경쟁, IFRS17 대응전략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중형보험회사가 장기보험 비중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던 점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건강, 질병 등 장기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고, 판매채널 측면에서도 GA채널의 영향력 확대로 대규모 자체 설계사조직 없이도 판매 확대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의 경우 서비스 경쟁을 위해서는 대규모 보상조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형 손해보험회사가 점유율 확대에 유리했을 수 있으며, 대형사들의 공격적인 온라인 채널영업 또한 중형사의 위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중형손해보험회사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장기보장성보험 비중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일 수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상품비중은 보험수요와 경쟁전략 등에 의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성보험 수요 증가는 상품비중 변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음

- 중형사의 장기보험 비중 확대는 증가하는 장기보장성보험 수요에 대응하면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성보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상의 손실 보전에 국한하지 않고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리스크관리 서비스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 변화는 향후 손해보험산업 상품비중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일반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서 유사한 비중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회사별 전략에 따라 일반보험 비중 편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